『군사작전 성공의 요체는 작전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장비보다는 사람에 초점을 맞추는데 있다』

美 육군은 이라크 점령 쿠웨이트에서 항복의 백기가 오르자마자 사막의 전격작전에 대한 전략적, 작전적 정통성을 최우선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팀을 구성하기 시작하였다.

전쟁교훈연구센터의 장(長)을 종전 대령에서 소장(Thomas H. Tait)으로 승격시켜, 육군이 얼마만큼 비중을 두어 다루는지를 짐작하게 하였다.

해군이나 공군 등타군도 곧 육군과 같은 조치들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나오면 향후 수십년간 의회의 국방정책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가지 기억해둘 일은 「사막의 폭풍작전-Desert Storm」은 모든 변칙 군사작전의 집대성이라는 사실이다.

그것은 「걸프전쟁」 자체이지, 장차전의 모델은 될수가 없다.

예로서 미국이나 연합군에게 군사력 준비를 위해 6개월씩이나 시간 여유를 주는 적과 다시 싸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수 있을까?

한마디로 한국전, 월남전의 참전경험을 가진 전사 연구가인 Ken Sheldon 소령의 말대로, 『걸프전은 우리팀만이 나와서 뛰고, 공은 우리에게만 있는 「슈퍼볼」게임과 같았다』

그렇지만 걸프전의 교훈은 있다. 매번 전쟁때면 얻어지는 교훈들 예컨대 발을 매일 점검해야되고, 되도록 양말을 자주 갈아 신어야 한다는 등이 있는가 하면, 최신 전투장비 기술이나 월남전 이후 발전되어온 공지전투의 효율성 부각 등도 있다.

분명 동남아전(월남전)의 불운에서 얻었던 교훈들을 더욱 확인 보강시켜주는 교훈도 주었다. Powell이나 Schwarzkopf 장군은 월남전시 초급장교들이었으나, 이번 전쟁에서는 월남전에서와는 달리 압도적인 전력과 명확한 군사목표를 갖고 전쟁에 임하였다.

David H. Hackworth / (예) 美 육군대령

이번 전쟁은 모든 전투력이 단일지휘관에 의해 지휘되고 대통령은 모든 군사적 결심을 군사지휘관에게 일임하였던 최초 전쟁이었다.

통상폭탄

공지전투 교리는 익히 알려진 대로 잘 맞아들어갔다. 이 교리의 주안점은 항공과 지상기갑이 긴밀히 협조하여 적전방지역을 여러개로 분할하여 전진함으로써 적의 복부와 측익을 강타하면서, 정형화된 세트피스 작전보다는 기동력에 주안을 두고 있다.

물론 기술적 우위에 많이 의존해야 한다. 실제로 걸프전은 스마트 폭탄때문에 이겼다고들 하고 있다. 일방적인 승리의 요인으로 항공력이 제일 큰 공신이라는 것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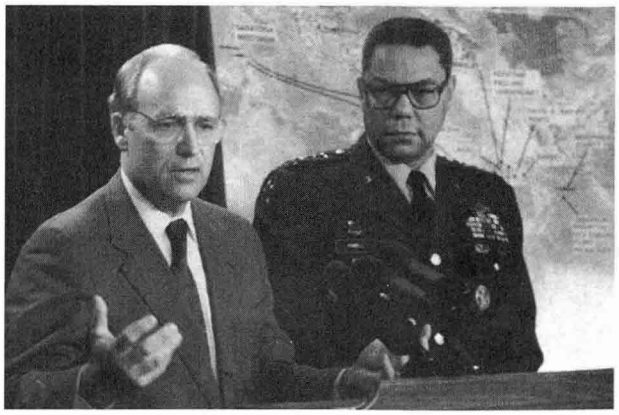
그러나 Pentagon의 선전과는 달리 투하된 폭탄의 7%만이 스마트 폭탄이었고, 그 나머지는 모두가 베틀린이나, 평양, 하노이 등에 투하되었던 것과 같은 통상폭탄이었다.

항공전력이 사막에서는 잘 먹혀들어간 반면 월남에서는 실패했다는 사실, 따라서 리비아에는 다시 먹혀들어가겠지만 소련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아둘 일이다.

이는 항공전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적의 마법이 될수 없으며, 전쟁을 하려면 기후나 지형 및 적의 능력에 따라 군사전략이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Donald Rice 공군장관은 최근 F-117 스텔스기가 다른 전폭기 70대분의 공격을 할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前 국방부 체계분석관이자 전투기 설계가인 Pierre Sprey에 의하면, 사막전에서의 F-117은 정말 스텔스라고 부를수도 없었을 뿐더러 폭탄적재량이나 항속거리에서 모두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하였다.



차라리 A-10은 볼품도 없고 구식기술로 된 지상근접지원 전차 킬러지만, 느린 속력에도 불구하고 「혹 멧돼지=Warthog」란 별명을 얻었고, 걸프전쟁에서 혁혁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1천 8백대의 총 항공전력중 1백 40대의 A-10이었지만, 이들은 공군이 파괴했다고 주장하는 전차의 70%를 파괴하였다.

후일 이라크 포로들이 말하기를 그들은 A-10을 가장 무서워하였다고 한다. 애초 공군측에서는 그들 수뇌부가 근접지원 임무를 별로라고 생각하는 바람에 A-10을 걸프지역에 보내기를 꺼려 했었으나, Schwarzkopf의 주장에 따라 결국 보내게 됐다.

후일 걸프전쟁 공군사령관인 Horner 중장은 A-10때문에 항공전이 명성을 유지할수 있었다고 참모들에게 말했다고 한다.

군사장비 폐처리장

걸프전에서 항공전은 정말로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전쟁지역의 특수성때문이기도 하다. 개활지에 제한된 도로망과 Euphrates와 Tigris강에 놓인 몇개의 교량은 전폭기들이 이라크군의 수송대열을 쉽게 찾아 공격할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지형적 여건에 따라 파괴된 군사장비들로 가득찬 세계 최대의 고물처리장이 생겨날 수가 있었던 것이다.

한가지 당혹케 하는 사실은 2백80억불 짜리 B-1B 폭격기가 움직이지 못했다는 것인데, 이들은 너무나 중병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B-B1가 날지 못하고 있는 동안 36살 먹은 B-52 폭격기가 1천8백24회의 임무로 총 투하폭탄 8만8천5백톤의 29%를 투하하였다. 이라크 포로들은 한결같이 이들 B-52 폭격이 이라크군의 사기를 거의 땅에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러함에도 국방부는 냉전도 끝나가는 이 마당에 B-2 스탤스 편대를 위해 6백 50억불을 쓰려고 하는지? 걸프전에서 B-1B를 활용해 보기를 꺼려한 공군이 앞으로의 비슷한 전쟁 발발시 B-2를 사용할 것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수리부속문제가 또한 중요한 부분인데 수리부속이 모자라면 장비에서 취발하여 사용하는 바람에 주장비들이 세상천지에 죽어 나자빠져 있게 된다. 지원한다고 해도 장비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Show가 될 것이다.

수리부속이 있어야 장비가 움직이게 되는데, 주(主)장비를 사는 것보다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리게되어, 항공기와 같은 새 장비는 보이는데 수리부속으로 가득찬 창고는 보이지 않는다. 소프트웨어의 부족현상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지난주 Schvarzkopf 장군이 의회에서 말했듯이 걸프전에서의 군사정보는 승인과 패인을 동시에 주었는데, 공(功)보다는 과(過)가 더 많았던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믿고 있다.

정보부서들은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기도를 알고 날짜까지 맞혔으나 이라크군의 능력이나 배치 또는 핵 및 화학전 능력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했다. 또한 공화국수비대의 전투의지에 대해 과대평가를 하였으며, 스커드 미사일 발사대의 수를 알지 못하였고 해상봉쇄나 경제제재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오산을 하였다.

인공위성은 많은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너무 양이 많아서 사용자가 쓸수 없을 정도라고 혹자는 말할 정도였다. 구름덮인 하늘이나 악천후때문에 위성에서의 관측이 제한을 받게 되고, 판독하기가 어려우며 또한 정확치도 못했었다.

이라크 군의 암호는 일찍이 해독되어, 전파도청으로 이라크군의 교신을 모두 해석할수 있었다. 그러나 숙련된 해독자의 부족으로 이러한 정보의 흐름이 방해를 받았으며, 이라크 수뇌부의 동정 파악 능력 결여로 연합군은 사담 후세인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수가 없었다. 걸프전에 참전한 모장군은 인공위성 사진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만약 『지상에 쓸모 있는 첩자 한명』만 있다면 이와 바꾸고 싶다고 불평하였다.

현 진행 상황으로 볼때 미 국방부는 1995년까지 해군함정을 5백35척에서 4백51척으로, 육군의 전투사단을 28개에서 18개로, 공군 전투비행단을 36개에서 26개로 각각 감축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잘못하는 것이라고 말할수는 없다. 왜냐하면 냉전이 종식되어 이렇게 감축된 군대로 대처가 곤란한 위협은 사라졌기 때문이다. 군대가 군더더기 살을 줄여 경량화하고 평균정도만 유지하면서 형식위주의 관료화만 되지 않는다면, 위협발생시 신속배치가 가능하며, 항공력으로 엄호가 될수 있다.

〈Defense Monitor〉지에 의하면 미국은 이라크를 그렇게 빨리 그리고 결정적으로 패배시키는데, 현역과 예비군 병력의 17% 및 주요 전투부대의 3분의 1밖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국방비나 軍구조의 검토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므로, 군의 장성들에게만 맡겨져서는 안된다. Willias Westmoreland 장군이 월남전의 승리를 장담했던 것이나, John Vessey 장군이 Grenada 침공작전의 결과를 과대포장했던 사실들을 상기해야 된다.

또한 1989년 파나마 작전시 스텔스 전투기가 몇몇의 폭격은 목표물로 부터 상당한 거리가 떨어진 곳을 공격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스텔스전투기의 폭격 정확도가 초정밀(pin-point)하였다고 딕 체니 국방장관으로 하여금 말하게한 장본인은 공군 4성장군인 Robert D. Russ였다.

따라서 전력감축이나 군구조 개편안은 펜타곤이 아닌 다른 기구에서, 즉 관료적 계급체제에 얽매이지 않는 수평적 사고를 할수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걸프전에서 무슨 교훈을 배웠나를 찾아냄과 동시에 무슨 교훈을 못 배웠나도 찾아내야 한다.

하원 군사 위원장인 Les Aspin 의원은 4월 30일, 부시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어 『걸프전에서 대(對)이라크 승리의 결과를 낳게한 미국 군사작전의 계획수립 및 실행의 전 과정에 대한 연구 검토를 하기 위해 유능한 민간인들로 구성된 독립팀의 구성』을 촉구하였다.

또한 『그 팀은 각군의 이해관계나 어느 특정 조직체에 구애되지 않으면서 포괄적인 검토가 가능토록 해야 된다』고 강조 하였다.

한편 Pierre Sprey는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일임할 경우 독자성을 잃을 염려가 있지 않겠는가? 대통령으로서는 자기가 짠 국방예산의 잘잘못을 해집고 나설 사람들을 왜 채용하겠는가?』라고 하였다.

1950년 19살의 나이로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나는 전쟁터에서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배우지 못함으로써 수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덧없이 죽어가는 것을 목격하였다.

군사비의 감축은 해야 되지만 매우 신중하게 심사숙고하여 감축부분을 고려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나 미래의 병사들이 부질없이 희생당하거나 고립된 전쟁터에서 무방비상태로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Newsweek 1991. 6. 24〉

(자료제공 : 현대전자 李淳一 理事)